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북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2017년 9월 26일 화요일 (음 8월 7일) 제189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2023 새만금잼버리, 전북발전 지렛대로 삼자

▶ 도, 잼버리 개최 소통 토론회

송 지사 “스카우트 연맹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준비를” 잼버리 추진체계 구축 가장 시급한 현안 떠올라 도, 특별법 제정 초안 마련 올해 안 발의에 분주

전북도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적 행사 개최 준비와 전북발전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 출연기관장, 14개 시군이 잼버리 현장에 모여 소통, 협업 토론회를 갖고 본격 준비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2017년 하반기 확대 간부회의의 성격이지만 전북도정의 최대 현안인 잼버리에 대한 간부급 공무원 및 출연기관장의 이해를 돕고, 14개 시군이 다함께 참여하는 성공적 행사 개최와 전북발전의 기회로 삼고 서로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열리게 되었다.

송하진 도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잼버리 유치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기고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勿失好機)이므로 전북이 중심이 되어 중앙부처, 한국스카우트 연맹 등과 협력해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전북발전의 지렛대가 될 잼버리! 전북발전과 어떻게 연계,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5일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양부지사, 실국원장, 14개 시군 부시장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잼버리 개최 현장 소통, 협업 토론회를 갖고 있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이 2023 새만금 잼버리 성공개최 준비계획과 전북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조정식 사무처장이 그동안 개최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실례 사례를 소개하고 새만금 잼버리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발표했다.

이어, 송하진 도지사는 분야별 담당 과장, 전문가, 시군 부단체장 등과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행사준비, 행사장 조성, 전북도의 강점 산업과 연계 방안, 14개 시군이 다같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 등 잼버리 준비과정

에서 예상되는 분야별 쟁점에 대한 송 지사의 예리한 질문에 분야별 대표 참석자의 열띤 답변이 오고갔다.

최병관 기초실장은 잼버리 준비에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잼버리 추진체계 구축이며, 특별법 제정과 조직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건의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고, 전라북도 자체 전담조직인 추진준비단을 이날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특히, 전북도는 자체적으로 특별법 제정(안)이 초안을 마련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부처와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는 발의가 되도록 노력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아열대 기후 및 공황, 철도 등 핵심 교통인프라 시설이 적기에 완공 되기 위해서는 예타면제가 반드시 면제되어야 하므로 정부와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도·시군, 도민이 소통하고 힘을 모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 간부들과 시군 부단체장 등이 잼버리 이해와 중요성에 공감한 만큼, 앞으로 6년 동안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전북발전과 연계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업무를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잼버리 유치 이후 새만금과 잼버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 약속과 총리를 비롯한 주요 정치권 등의 개최 현장 방문 등 관심이 높어진 상황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할 것을 잘 정리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도내 고교 신입생 입학금 내년부터 면제
공립·사립 포함 126교

전북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공립 고교의 신입생 입학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에서도 학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2년 이후 동결해 온 고등학교 입학금 면제를 요구한 바 있다.

면제대상 학교는 공립 63교, 사립 63교 등 총 126교다. 상산고, 남성고, 군산중앙고, 한국계입학교, 전주예술고 등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사립학교 5교는 제외된다. 고교 입학금 면제로 내년 고교에 진학하는 신입생 1만8000여명이 혜택을 보고 총 2억5천여만원의 학부모 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도내 고교 입학금은 급지에 따라 1만1500원~1만6200원(방송통신고 5000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교 입학금 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4차 산업혁명도 사람 중심”
문 대통령, ITU 텔레콤 월드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4차 산업혁명도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 벅스코에서 열린 ‘2017 ITU 텔레콤 월드스’ 개막식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 디지털화의 혜택을 모든 국민과 국가가 함께 누려야 한다”며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성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선정

도, 경제·문화예술·농수산 등 7개 분야 7명

전북도가 최근 제22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본 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수상자에는 경제대상에 (주)해전산업 대표 김형식씨를 비롯, 문화예술대상에 김동식씨, 체육대상에 서정일씨, 학술·언론대상에 이재운

씨, 농림수산대상에 정완철씨, 나눔대상에 강갈라씨, 근로대상에 최강성씨 등 총 7명이 선정됐다. 올해는 예비심사에서 효행 분야 후보자가 추천되지 않아 7개 분야 후보자만 심사했다.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



김형식씨 김동식씨 서정일씨 이재운씨 정완철씨 강갈라씨 최강성씨

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한 전북인을 찾아 시상하는 상으로 22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올해는 경제, 문화예술 등 총 27명의 후보자들이 접수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현지조사와 두 번

의 심사(예비심사, 본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최종 분야별 1명씩 총 7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오는 10월 25일 열리는 제37회 도민의 날 행사 시상식에서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상패와

메달을 수여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승일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훌륭한 도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가족끼리 오순도순한 명절 보내세요

만가위를 맞이하여 고마운 분들에게 익산의 푸른인증 탐마루 선물세트로 진심을 전하세요~ 추석 명절 여러분의 가정에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탐마루

익산시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가볼이별기생가, 성당포구마을/홍익재단공원, 풍도 읍내나루, 성당 고도소세토장, 보석박물관